

# 경북도 “韓 백신 생산거점 만들 것” 서울대 인문 272점·자연계열 263점 내외

이철우 경북도지사, 도정 방향 발표 내년 예산 11조2527억... 민생 강조 모든 산업에 대한 ‘스마트화’ 지원 백신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예정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 북부권을 대한민국 최고의 백신 연구개발 및 생산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3일 경북도의회 제327회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도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내년 예산 11조2527억원에 대한 설명에서 ‘민생’을 강조하면서 ▲전도민 안전보험가입 ▲신생아 1만 3000명에 대해 200만원의 출산 축하 소비쿠폰 지원 ▲산후조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등과 함께 농업분야에서 ▲농가 27만호에 농어민 수당 60만원 지원 등 과격적인 정책들을 소개했다.

일자리 창출도 강조해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교통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의 정책을 도입하고 문화관광 산업 분야에서는 한글 문화·콘텐츠 산업 집중 육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 북부권을 대한민국 최고의 백신 연구개발 및 생산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 의지를 표명했다.

이 지사는 ‘경북의 대전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의 투자주도형 경제에서 기술중심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탄소중립과 지역 내 균형 발전에 주력하겠다”며 “우선 지역의 모든 산업들에 대한 스마트화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지원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첨단 교통체계, 스마

트 하수도관리체계 등 전통산업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의 투자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지역의 미래유망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기반구축에 나설 것”이라며 “북부권을 대한민국 최고의 백신연구개발 및 생산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백신 연구개발 지원에 나서고 백신전문인력양성센터도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소형 모듈원자로 등 혁신원자력 기술개발과 실증 연구단지 조성 계획도 소개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으로는 스마트 그린도시 및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시범마을 조성,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동부청사와 농업기술원 등 공공청사 신축 ▲봉화·청송·영양 등 취약지역 소방서 신축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성위능화(誠爲能化)라고 했듯이 지극한 정성만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내년에도 민생 안정과 미래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metroseoul.co.kr

## 광주시교육청,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8일 실시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를 분석했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학분석팀이 광주지역 고3 재학생을 기준으로 수능 가채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된 국어는 지난해 수능에 비해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됐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학분석팀이 국·수·탐 원점수 300점 기준으로 대학교별 지원 가능 점수를 분석했다.

서울대는 인문계열 272점 내외, 자연계열 263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계열은 서울대 응시기준(서로 다른 과탐 I+II, II+II 조합)에 충족한 학생들 표본에 의한 자료이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인문계열 262점 내외, 자연계열 257점 내외가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교육대의 지원 가능 점수는 233점 내외,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지원가능 점수는 250점 내외, 한국에너지공과대는 250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남대의 경우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232점, 국어교육과 229점, 행정학과 226점, 경영학부 223점, 인문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196점 내외로 판단된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273점, 치의학과 269점, 약학부 266점, 수의예과 261점, 전기공학과 246점, 간호학과 219점, 자연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수학 지정(미적분/기하) 학과 200점, 수학 미지정 학과는 192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대의 경우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197점, 국어교육과 195점, 인문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127점 내외로 판단된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272점, 자연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129점 내외로 판단된다.

/광주=김태우 기자 ts7080@

## 신안군, ‘개체굴 전용 기반시설’ 준공

올해 8월부터 성패 출하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전국 최초 개체굴 전용 기반시설 준공식 개최를 통해 개체굴 양식산업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다고 23일 밝혔다.

개체굴 종자배양장은 927m<sup>2</sup> 규모로 개체굴 종자생산과 중간육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자은면 등 7개소에서 노출식 개체굴 테이블식 시범양식 후 2021년 8월부터 성패가 출하되고 있다.

그리고 개체굴 전용 처리저장시설은 344m<sup>2</sup> 규모로 2021년 09월 준공하였으며, 개체굴 성패 출하를 위한 자동 세척 선별 포장라인과 살균 및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춘 해감시설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개체굴 상품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청정신안의 이미지 제고를 위

해 신안1004굴 브랜드 개발과 함께 패키지에 1004섬신안 로고를 각인하여 강남 대전 신세계백화점 VIP라운지와 레스토랑에 시범납품중에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명동점 푸드마켓과 유명 오이스터바에도 납품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청정갯벌을 바탕으로 친환경 개체굴 양식 산업화에 도전하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양식시설을 규모화하여 민간이전을 통해 전라기반산업으로 육성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1004섬 신안을 실현할 것이며, 특히, FDA 패류생산지정해역 및 친환경양식인증(ASC), 세계수산물박람회 출품을 통해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향해 신안1004굴의 가치를 알리고 수출을 통한 외화수입원의 견인역할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전남)=안행주 기자 abcd@

## 여주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비전 선포

5년간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 수립 창업·운영 활성화 등 4대 목표 설정

여주시(시장 권오봉)는 지난 22일 히든베이호텔에서 ‘시민이 만드는 협동도시’라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목표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1부에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 육성계획이 제시됐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조성방안과 함께 비전 선포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2부는 효과적인 의견 소통을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가를 대상으로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다.

여수사경센터는 지난 6월부터 약 1개월간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여주시는 지난 22일 히든베이호텔에서 ‘시민이 만드는 협동도시’라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목표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전수조사를 시행한 것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을 수립했다.

비전과 함께 4대 목표로 사회적경제 창업 및 운영 활성화, 사회적경제 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대한민국 대표 사회적경제 도시, 사회적경제 자립생태계 조성을 설정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민이 만드는

협동 도시를 위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쉽게 참여하는 방법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미가 담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라면서, “오늘 발표한 비전과 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우리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전남)=김용환 기자 jjiacecom@

## 안동 시내버스 노선 개편, 내년으로 연기

BIS 적용·노사합의 부족 등 이유

경북안동시는 이달 말부터 시행하려던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일정을 내년 1월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변화하는 도시여건 및 공간구조에 능동적인 대처 및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추진해 왔다.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민원과 기초현황조사, 시민 설문조사, 이동패턴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교통카드 기반 승차차 조사 등 체계적인 분석을 거쳐 지난 9월 용역보고회를 갖고 최종

노선(안)을 마련했다. 시는 최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부터 노선개편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내버스 운행 시간표 작성 및 검토, 근로기준법 적합 여부,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노사합의, 교통카드 데이터 반영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적용, 노선개편 홍보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연기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일정이 미뤄진 만큼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검토와 홍보를 통해 성공적인 노선개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 김순호 구례군수

군민과 대화로 ‘열린 행정’

김순호 구례군수는 22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활동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군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 위주의 열린 행정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열리며, 구례군 8개 읍면을 대상으로 1일 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한다.

아울러 이번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군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구례(전남)=심인주 기자 6007sim@



보성군은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졸업생 등 40여 명의 참석자와 함께 제11기 보성생명농업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 보성생명농업대, 차세대 정예농업인 배출

제11기 졸업식 개최

보성군은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졸업생 등 40여 명의 참석자와 함께 제11기 보성생명농업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21세기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정예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2011년 1기 한우전문반을 시작으로 올해 11기는 토마토반 과정으로 진행되어 지금까지 정예농업인 422명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추진되었다. 3월 24일부터 11월 17일까지 8개월간 총 25회, 100시간에 걸쳐 운영됐다.

외래강사와 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가 강사로 나서 토마토 생육 및 생태적 특성, 병해충관리 등을 비롯한 고품질 토마토 재배기술, SNS 활용 마케팅 방법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보성(전남)=문쌍환 기자 m8527188@